

중국인 유학생 광주서 대규모 체육대회

“혹시나” 경찰 긴장

‘성화 폭력’ 이후 첫 집회...2개 중대 배치

중국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폭력’ 이후 한국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오는 3일 광주에서 대규모 체육대회를 할 예정이어서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시와 중국대사관 광주영사사무소, 광주·전남지역 중국 유학생 총학생회는 오는 3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시민공원에서 ‘한·중 우호교류의 날 및 제1회 호남지역 중국 유학생 체육대회’를 갖는다.

경찰은 이날 체육대회에 광주와 전남·전북지역에 산재한 중국인 유학생 2천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

다. 또 이날 행사에는 닝푸쿠이(寧賦魁) 주한 중국대사도 참석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베이징 올림픽 성화의 서울 통과시 벌어진 중국인 유학생 폭력사건과 관련, 한국과 중국 간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행사장 주변에 시위 진압부대 2개 중대 200여명의 경찰을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중국 대사 경호를 위한 경호요원 10여명도 배치된다.

경찰이 이번 행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성화봉송’ 폭력사태 이후 중국인 폭력 시위자에 대해 현상금을 내걸거나 ‘척살단’을 모집하

겠다는 등 일부 네티즌들의 감정적 대응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은 행사장 주변에서 중국 인권단체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시위와 티베트 독립을 외치는 티베트인, 파룬궁 관련 단체의 시위 등이 벌어질 경우 자칫 폭력사태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행사장 주변에 진압부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단지 중국 유학생들만의 체육대회가 아닌 한·중 우호교류 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이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중국 유학생들을 자극하는 시위나 소란이 벌어질 경우 중국인 유학생들의 돌발행동을 막기 위해 경력을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노동절 기념대회

1일 제118주년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소속 노동자 1천여명이 광주시 동구 산수동 법원 앞 사거리에서 ‘5·1 노동절 기념대회 및 민주노총 탄압 분쇄 광주·전남노동자대회’를 갖고 정부의 노동정책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내 아이 이름 어떻게 알았을까

광산서 ‘보이스 피싱’ 500만원 사취...정보 유출 사태 연관성 수사

가정집으로 전화를 걸어 “자녀를 납치했다”며 협박해 몸값을 가로챈 ‘보이스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이 과거와 달리 납치했다는 자녀의 이름 등 신상 정보를 정확히 밝히고 있어 최근 들어 잇따라 일어난 개인 신상정보 유출로 인한 연쇄 범죄의 흑두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S(여·45)씨 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경상도 억양을 쓰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당신의 아이 김○○(18)를 납치했으니 현금 250만원을 이체하

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수화기에서는 “엄마, 살려줘요”라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의 이름까지 정확히 대자 당황한 S씨는 전화를 끊고 인근 은행에서 돈을 이체시켰다.

30분 후 다시 집으로 걸려온 전화에서 범인은 “돈이 너무 적지 않느냐? 250만원을 더 보내라”고 말했다고 추가 입금된 것을 확인 후 “집 앞에 아이를 내려놔요 안심하랴”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집 밖으로 뛰어나간 S씨는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윽고 정신을 차린 뒤 학교로 전화를 걸어 확

인결과 아들은 수업을 받고 있었으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광주광산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상대방의 계좌를 조사해봤지만 이미 돈은 빠져나간 직후였고, 범인의 행방 또한 찾을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에서 전화를 걸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보이스 피싱 범죄가 이전 상대방의 신상 정보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최근 벌어진 대형 쇼핑물 정보 유출 사태와 연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나원침 (7496) 김장동



다중의 건축·산업·지체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관행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본점 : 061) 337-0571

50대, 지리산서 산삼 5뿌리 횡재

○50대 여성이 지리산에서 100여년 된 산삼 5뿌리를 캐 화제.

○1일 한국전통식품협회 정형범 회장에 따르면 박모(여·52)씨가



지난달 30일 구례와 경남 하동 경계 지점인 지리산에서 약 100년 된 천종산삼(天種山蔘·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산삼) 5뿌리를 발견했다는 것.

○정 회장은 “천종산삼이 발견된 것은 올해 처음으로, 이 산삼은 아이가 앉아 있는 형태를 하고 있어 동자삼이라고도 불린다”고 설명.

○정 회장은 “산삼 5뿌리 감가가 격은 8천만원 가량으로 추정되며, 산삼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덧붙이기도.

/구례=김동호기자 dhkim@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력’ 대낮 학교 잔디밭서 발생 ‘충격’

지난달 21일 대구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은 대낮에 학교 잔디밭에서 일어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 서부경찰은 지역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여자어린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11명과 8명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당초 알려진

가해자 10명과 피해자 3명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이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 가운데 초등학교 남학생 6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성폭력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중학생 5명을 1일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이

지난달 21일 오후 5시에 문제의 초등 학교에서 약 100m 떨어진 한 중학교 교정의 외진 잔디밭에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중학생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지시를 받은 후배 초등학생들이 귀갓길 여학생들에게 “눌러 가자”며 교정 외진 곳으로 유인하면서 사건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중학생과 고학년 초교 남학생들이 현장에서 달아나려는 여학생들의 손목을 잡아 누르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고학년생들이 저학년생들을 위협, 성폭력을 강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환뉴스

5·18구속부상자회장 또 직무집행 정지

이사·감사 등 26명도

회원 간 첨예한 갈등 끝에 선임된 5·18구속부상자회 회장, 이사, 감사 등 임원진의 직무집행이 또 정지됐다.

광주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김병하)는 최근 나모(46)씨 등 구속부상자회 회원 16명이 낸 회장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나씨 등이 구속부상자회를 상대로 낸 임시총회 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때까지 양모 회장과 26명의 이사, 이사의 직무집행은 정지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장 등을

선임한 임시총회가 유효하더라도 새 정관은 부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데 이 임시총회 당시 정관은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며 “효력이 없는 정관에 따라 진행된 임원선출 결의는 모두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구속부상자회는 지난 2월 23일 임시총회에서 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연행, 구금 또는 수배된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도 회원 자격을 주기로 정관을 개정한 뒤 곧바로 회장, 이사 28명(당연직 17명, 선출직 11명), 감사 2명을 선출했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직 교장 살해 60대 징역 12년 선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1일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전직 교장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62)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교육자로서 평생을 사회에 봉사한 뒤 평안한 노후를 보내던 중 피고인의 근거 없는 의구심 때문에 억울하고도 비참한 죽음을 맞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김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아동안전 지킴이집’ 덕택에...

여수서 여중생들 폭행 모면

최근 경찰이 유괴와 성폭력 등 어린이 대상 강력범죄 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아동안전 지킴이집’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여수경찰은 1일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김모(16)양 등 2명을 폭력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여수시 공화동 모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귀가중인 고모(15)양 등 2명을 학교 안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2만7천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 등은 김양 등이 금품을 빼앗은 뒤에도 계

속 폭력을 휘두르자 인근 문구점이 최근 지점된 ‘아동안전 지킴이집’이란 것을 생각해 내고 100m 떨어진 문구점으로 피신해 업주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업주는 곧바로 지구대에 이를 신고했다. 김양 등은 출동한 경찰에 10분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해당 문구점 업주에 대해서는 ‘아동안전 지킴이집’ 활성화와 청소년보호활동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감사장과 함께 신고 보상금 30만원을 지급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승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00 / 061-722-0100

10125300-9999